주목! 이 영화 '마이애미 바이스'

할리우드 자존심 건 스펙터클 스릴러

미국 언론이 '2006 여름 시즌의 마지막 블록버스터'라고 치켜세웠던 영화 '마이애미 바이스'(Miami Vice)가 개봉했다.

1980년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NBC TV의 동명 TV 시리즈를 영화로 옮긴 것으로 제작비만 1억 3천500만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스펙터클의 액션 스릴러 영화다.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천만 관객을 돌파하는 등 한국 영화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가운데 오랜만에 등장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얼마만큼 위력을 발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히트' '알리' '인사이더' '콜래트럴'의 마이클 만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콜린 파렐과 제이미 폭스, 공리 등 세 스타의 만남도 볼거리다. 거대 마약상의 정부 이사벨라로 출연하는 공리는 '게이샤의 추억' 이후 두번째 출연한 영화에서 능숙한 영어 연기를 선보였다.

비밀경찰 소니(콜린 파렐)는 거대 마약상의 뒤를 파헤치던 중 이사벨라와 치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된다. 전반적인 이야기는 드라마와 유사하지만 부분적으로 현대 상황에 맞게 수정했다. 특히 대규모 총격전이 펼쳐지는 마지막 신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전쟁 장면보다 사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압권이다.

미국에서는 개봉 첫 주말 3천21개 극장에서 2천572만 달러의 수입을 벌어들이며 주말 박스 오피스 1위에 올랐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애교 만점 동네 최고 '퀸카'

최정원 '이장과 군수'서 남옥 역으로

영화계는 지금

KBS 2TV 주말극 '소문난 칠공주'에서 나미칠 역으로 사랑받고 있는 최정원(사진)이 영화 '이장과 군수'(감독 장규성, 제작 싸이더스FNH)에 남옥 역으로 출연한다.

최정원이 연기할 남옥은 면사무소 직원으로, 젊은 이장 조춘삼(차승원)의 마음을 흔들어놓는 애교 만점의 동네 최고 '퀸카'.

'이장과 군수'는 어린 시절 반장이었던 조춘삼과 만년 부반장이었던 노대규(유해진)가 성장한 뒤 이장과 군수로 처지가 바뀌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룬 영화로 '선생 김봉구'의 장규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이다.

'아빠 전성시대'가 왔다

영화 속에서 주로 직장과 가정에서 무기력하고 소외된 모습으로 그려지던 아버지들이 가족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잔혹한 출근'에서 유괴된 딸 아이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버지로 출연하는 김수로.

▼ 스크린에 부성애(父性愛) 바람 불다

연일 관객 동원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괴물'에는 두명의 아버지가 등장한다. 박강두·남일·남주 3남매의 아버지인 박희봉(변희봉 분)과 현서의 아버지인 박강두(송강호 분).

조금은 모자란듯한 큰 아들 강두를 항상 감싸는 희봉은 '자식 잃은 부모마음이 한번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냄새가 십리밖을 진동하는거여'라는 대사를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한다.

동생에게조차 구박받는 덜 떨어진 강두지만 괴물에게 잡혀간 현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스크린에 부성애(父性愛) 바람이 불고 있다. 영화 속에서 주로 직장과 가정에서 무기력하고 소외된 모습으로 그려지던 아버지들이 가족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송강호·설경구·정진영·김수로·이문식 등 요즘 충무로에서 잘 나가는 배우들이 앞다퉈 '아버지' 역으로 출연중이다.

'가족 위해선 뭐든지 한다' 새 아버지상 표현

송강호·설경구·김수로 스타급들 앞다퉈 출연

'말아톤' '친절한 금자씨' '엄마' '오로라 공주' '사랑해 말순씨' 등 각양각색의 '어머니'가 스크린을 장악한 지난해와는 분명 다른 흐름이다.

충무로의 연기파 배우 설경구는 아들을 납치해간 유괴범 잡기에 혈안이 돼 있다. 지난 1월 공소시효가 만료된 '1991년 이형호 유괴사건'을 모티프로 한 팩션 드라마 '그 놈 목소리'에서 톱앵커 한경배로 분한 설경구는 유괴당한 아들을 찾기 위해 피말리는 44일을 보내는 아버지를 연기한다.

코믹 연기의 달인 김수로는 영화 '잔혹한 출근'에서 유괴된 딸 아이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되는 일이 없어 인생은 꼬이기만 하고 결국 부잣집 여고생을 납치해 돈을 뜯으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딸이 납치당한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딸 아이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송강호는 '우아한 세계'에서 '조폭'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유학간 아들의 학비를 대고, 사춘기로 접어든 딸 아이와의 관계를 걱정하며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강인구 역할을 맡았다.

이준기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은 '플라이 대디'의 주인공은 복수에 나선 아버지 이문식이다. 39살의 평범한 중소기업 과장인 이문식은 고등학생 딸 아이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19살 싸움 고수 가필을 찾아가 실력을 연마하고 복수를 감행한다.

가수 이민우가 주연을 맡은 '원탁의 천사'는 죽어서도 아들을 보살피려는 따뜻한 부성(父性)을 다룬 영화다. 사기전과 2범의 죄수로 복역중 뇌진탕으로 목숨을 잃은 영규(임하룡 분)는 홀로 남겨진 아들을 곁에서 지키기 위해 천사의 도움을 받아 고등학생(하하 분)으로 환생한다.

그밖에 '왕의 남자' 정진영은 영화 '번트'에서 아이큐 60의 천진난만한 동구를 홀로 키우는 아버지로 출연중이며 박신양은 영화 '눈부신 날에'에서 월드컵 경기를 보는 게 꿈인 딸 준을 위한 악전고투하는 우종대 역을 맡아 열연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그 놈 목소리' 설경구

'우아한 세계' 송강호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마이애미 바이스 1980년대 인기 드라마를 영화화 했다. 화려한 액션과 충격적인 총격신이 볼거리다. 18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신데렐라 현수(신세경)는 성형외과 의사인 엄마(도지원)에게 수술을 받은 친구들이 잔혹한 죽음을 맞게 되자 엄마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사랑하니까, 괜찮아 어린 연인의 시한부 사랑을 다룬 멜로 영화. 신세대 스타 지현우가 순정남 강민혁으로, 임정은이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한미현으로 출연한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겁나는 여친의 완벽한 비밀 G-Girl(great-girl)로 통하는 슈퍼 히로인 제니(우마 서먼)는 멋진 킹카와 사랑에 빠지지만 곧 결별을 통보받게 되고 복수를 결심한다. 15세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각설탕 어릴때부터 유난히 말을 좋아한 시은(임수정)은 2년전 원치않게 헤어져야 했던 경주마 천둥이와 운명적으로 재회하게 되고 함께 경마대회에 출전한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다세포소녀 인터넷 만화를 원작으로 쾌락의 명물 무쓸모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황당하고 유쾌한 이야기들을 그렸다. 15세 관람가.	롯데(첨단·광주),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메가라인, 목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게드전기 : 어스시의 전설 '토토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 인기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온 지브리 스튜디오의 신작으로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아들 미야자키 고로가 메가폰을 잡았다. 용과 인간과 마법이 공존하는 환상의 세계가 펼쳐진다. 전체 관람가.	롯데(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첨단), 하미,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몬스터 하우스 사춘기에 접어든 예민한 디제이는 바로 앞집이 악령이 깃든 괴물같은 집, '몬스터 하우스'란 사실을 알게 된다. 전체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괴물 오염된 한강에서 돌연변이로 생긴 괴물을 상대로 가족의 사투가 펼쳐진다. 12세 관람가.	롯데(광주·첨단), 메가박스, 무등, 밀리, 엔터, 프리머스 제일,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